

중심자

작성일: 2011. 1. 20. (목)

작성자: 김선명 (마산 주사랑빛 교회 청년부)

[주님께서 중심자의 귀함을

섭리인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심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선생님을 오해하고 또한 주님을 오해하며

이 시대 재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선생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며 이 복음을 외치고

올 한해 대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중심자는 바로

그 시대에 해당되는 성삼위의 뜻을 펴는 사람이다.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 전능한 성삼위와 통하며

이 땅 가운데 전능하신 성삼위의 사랑과 능력과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시대마다 가장 핵심의 중심자는 딱 한 명이다.

각 센터별로, 각 수준대로 보다 중심이 되는 자들이 있지만,
이들도 실은 시대 영적인 중심자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배치한 자들이다.

군인들이 사열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수많은 열과 행이 있지만 기준은 한 명이다.

한 명의 기준이 서 있어야 온전히 열과 행을 맞출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세상도 영적인 섭리역사의 중심자를 기준해서
보다 차원과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줄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야 모든 자들이 동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도 중심, 저기도 중심이면

하나님의 일률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흐트러지는 것이다.

중심자는 육을 통해 전능하신 성삼위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야 하기에

그 한 명을 만들어 내기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것이다.

중심자는 한 인생 살아가다 그 선한 행실로 인해

성삼위의 눈에 들어 뽑히는 자가 아니다.

아무리 인생들 스스로가 몸부림친다고 해도

중심자가 될 수는 없다.

중심자는 하늘의 뜻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중심자 외에 스스로 신앙에 심취해서

평생을 수도생활을 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시대 중심자로 쓰일 수는 없다.

중심자는 한 민족을 택하고, 한 가문을 택하여
오랜 시간 선대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에 속한 핏줄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그 혈통의 선조들 몇 세대 전부터
준비하고 예비하여 중심자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고로 택함 받은 자라 말하는 것이다.

인생들 모두 각자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유전자를 통하여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하늘의 중심자로 쓰이는 자들은
조상의 혈통을 통하여
전능하신 성삼위와 통할 수 있는
하늘 성향의 기질과 능력을 한 대, 한 대 만들어 나가며
마침내 중심자 당세에 이르러
가장 극적인 하늘의 형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태어난 중심자는
당세에 공생애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사생애 기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고통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처럼 중심자는 어렵게 만들어지지만
중심자라 해서 다 같은 중심자가 아니다.
중심자도 서로 다른 격이 있다.
중심자도 시대의 구원급과 때에 따라
그 사명의 급이 틀린 것이다.
비유로 말하면 어떤 왕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사업의 경, 중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의 격도 달리하여
정말 중요한 일은 왕의 심정을 가장 잘 알고
왕을 자신보다 사랑하며
오직 왕의 심정과 뜻을 펼 수 있는 자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성삼위께서도 섭리역사의 때와 수준과 중요성에 따라
중심자의 격의 위치와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하는 것이다.

섭리역사의 첫 시작인 아담은
섭리역사의 정말 큰 중심자였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격을 가진 자였다.
성경에 나 에수를 후 아담이라고 칭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바로 아담이 행해야 했던 일을
구약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지 못하고
단지 선지자들은 후 아담인 나 에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만 감당했다.
구약 중심자 모두가 아담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로지 나 에수가 와서 복직시키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만큼 그의 사명은 큰 것이었고 중요한 것이었다.
아담은 섭리역사의 기초를 만드는 자였다.

아담의 사역을 비유로 말하면
마치 건물을 짓기 위해 반석을 이루는 것과 같다 하겠다.
높고 훌륭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정말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그 기반과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건물도 온전히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섭리역사도 마찬가지다.
역사의 기초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고로 아담은 섭리역사의 기초를 다지는 자요.
역사의 반석을 이루는 자였다.
섭리역사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큰 사역을 담당하는 자였다.

아담이 세워 놓은 섭리역사의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자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다.
쉽게 말하면 건물도 올리기 전에
그 기초공사가 중단되어 버린 것이다.

인생들은 아담이 아닌 다른 자를 통해
역사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다.
아담과 같이 성삼위의 큰 뜻을 실현할 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인생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다.
아담같은 자를 다시 세우려면

아담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준비한 그 모든 시간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 틈을 타서 사탄, 마귀들이 치고 들어와
모든 존재세계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한 것이다.
이것이 루시퍼의 계략이었다.

고로 전능하신 성삼위께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담 타락 이후 손해 봐야 할 시간을 최소화하여
이 땅에 복직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먼저는 선지자들을 통해 섭리역사의 맥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구약 4000년간
나의 육적 강림을 준비했다.
이 4000년의 시간을 비유로 말하면
인생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갈고 가꾸며
옥토밭으로 만든 것과 같은 것이다.

농사도 무릇 결실 맺을 만한 곳에 씨를 뿌려야 하듯
복음의 역사도 그러하다.
복음의 씨를 뿌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4000년간 이스라엘 유대 땅을
선지자를 통해 갈고 가꾼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간도 온전히 원하는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너무나 부족했다.
그러나 성삼위께서는 너무 급했다.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섭리역사를 뛰고 있지만
전능하신 성삼위께서는 숨이 넘어가는 것이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가장 최소한의 시간을 준비하여
구원 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시한폭탄이 30초 남았을 때
그것을 해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담이 사탄에게 꼬여 타락했기에
모든 판도가 사탄에게 넘어갔고,
이것을 다시 빼앗아 오지 않으면 이 육적 세계가 위험하기에
전능하신 성삼위는 경각을 다투며
사탄에게 빼앗긴 4000년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나 예수의 육적 강림을 결심한 것이다.

구약 성경에 나 예수의 강림을
영광의 주와 고난의 주로 둘 다 예언했다.
하지만 인생들의 온전한 책임분담으로,
나 예수가 영광의 주로 갈 수 있었던 확률은 희박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의 강림을 준비한 구약 4000년의 기간은
이 세상을 온전한 옥토밭으로 가꾸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서도 전능한 성삼위께서는
나 예수의 지상 강림을 결심한 것이다.

성삼위께서는 아담의 타락 후

나 예수의 전능한 본체와 절대적으로 일체될 수 있는
육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예비했다.

성경을 보아라.

나의 모든 육적 혈통의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였다.

그리고 내 육의 모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내 육이 태어난 것이다.

나는 사람의 몸을 통해
철저하게 나의 육적 강림을 사탄에게 숨기고 숨겼다.
그러나 사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의 강림의 예언을 알았기에
사탄의 육 된 자를 통해 나를 막으려 했다.
보다 온전히 나의 육적 강림이 준비되지 못한
육적 세계였기에
사탄은 인생들을 통해 나를 괴롭게 하고 역사를 막아섰다.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발악했다.
나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탄의 종 된 자들로부터 쫓기며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
사탄은 나 한 명을 막기 위해
내가 태어날 때의 베들레헴 모든 지경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
사탄은 이렇게 악랄한 것이다.

내 육은 선하고 의로운 핏줄에 속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숨기고 나의 육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숨기며
육적 세계에서 인생들과 같이 생활하며
참으로 극적인 생과 사의 기로에서 연단 받아야 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육에게
내 사명과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다.
내 육은 인생들과 동일한 형질로 되어 있다.
단지 내 영적인 본체만이 전능한 신이다.
고로 내 존재를 숨기고
내 육이 내 전능한 본체와 일체될 수 있도록
사생애 기간 동안 연단시켰다.

나의 사생애 30년은 전능한 내 본체가
내 육을 원하는 만큼 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육을 만드는 기간이었다.
내 육이 전지전능한 내 본체의 모든 능력을
뿔어낼 수 있는 경지까지 만들어야 했다.
내 본체의 능력이라 함은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과 이적의 능력이 아니라
내 전능한 본체가 인생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내 육이 사생애 연단을 통해 드디어 완성되어
전능한 내 영의 본체와 일체되어
모든 성삼위의 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나는 내 육에게도 혼을 통해
전능한 나의 본체의 존재와
내 아버지의 존재와 인생의 근본과 근원을 드러내며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다.
내 육이 온전해지지 않고
내 전능한 본체와 일체되지 않았을 때
내가 내 공생애를 시작했다면
사탄의 계락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내 육이 내 본체와 완전하게 일체되지 않았다면
내 육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도망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과도 같은 것이다.

내가 이 땅에 강림했다는 것은,
전능한 신적 존재인 내 본체가
육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영원부터 존재했던 내 전능한 본체가
육의 형질과 일체되어 그 혼을 통해
모든 육의 고통과 아픔과 경험을 다 받은 것이다.
내 육만 이 땅에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내 육이 받은 고통을 내 본체가 함께 받았다.
너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부활했을 때
내 손과 내 옆구리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보며

내 육이 부활한 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잠시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영도 육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혼을 통해 직접 전달받는 것이다.

(지상영계를 보여주시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이다.
얼굴에 화상 입은 자는 육이 불에 타 죽은 자들이다.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자, 머리에 구멍이 나 있는 자는
전쟁터에서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어린아이 영은 어려서 죽은 자다.
그리고 늙은 자들은 늙어서 죽은 자다.
이와 같이 육이 처해 있었던 모든 것은
혼을 통해 영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육이 받았던 상처 또 육이 늙어감에 따라
그 혼을 통해 그 영도 그대로 영향 받아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육이 살았던 수준만큼
지상영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다
때가 되면 보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 듣고 나 예수를 아는 영은
육이 상처를 입고 죽으면
그 영도 그대로 혼을 통해 그 상처를 받지만

영계에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
또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영의 형질이 변하는데,
육의 나이를 혼을 통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홀연히 썩지 않는 것으로 거듭나고 다시 산다는 것이다.
너희가 말씀 통과하는 날을 영적 생일이라고 표현하고,
실제 육은 청년인데 영의 모습은 소년처럼 보이는 것은
너희 영이 썩어지지 않는 것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이다.

영도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육처럼 썩고 부패되는 것이다.
성경의 ‘홀연히 변한다’는 것은
바로 육이 아니라 영을 두고 한 말이다.
진리의 성령, 전능한 성삼위의 신성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법칙이 있기에
또한 내 전능한 영이 육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 내 육과 일체되었기에
나는 내 육이 받은 고통을
내 전능한 본체도 그대로 받은 것이다.
내 육 따로 내 영 따로라면
내 전능한 본체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수였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육의 형질을 만들고
그 형질 안에 나를 가두고 그 육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내 전능한 본체가 같이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신약 3년간 아담이 못 이룬

섭리역사의 초석을 이루어 내고

내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내 전능한 본체는 하늘로 승천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섭리역사의 초석 위에

온전하고 완전한 역사를 위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승천한 그날부터 다시 준비한 것이다.

내가 신약 때처럼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역사를 펴기 위해
육이 필요했고, 그 육이 바로 선생인 것이다.

선생은 지난날 신약 때 내 본체가 쓰고 다녔던
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내 육의 형질을 땅에서 다시 살려낸 것이 아니라,
새 역사 환경과 여건에 맞게

그리고 인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칙에 맞게

이곳 동방의 나라 한국에서 새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
선생이라는 새로운 육의 형질을 만들어 낸 것이다.

모든 역사의 흐름과 온 인류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는
동방나라 이곳에서 새 역사 시작해야 하는데

푸른 눈, 하얀 피부색을 가진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너희의 상식을 가지고도 이상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무 웃으셨습니다.)

선생은 2000년간 그 선조 때부터 준비하고 예비한 자였다.
그 혈통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에 속했고
육으로는 사탄을 속이기 위해 참으로 낮은 곳에 속했다.
나는 지난날 신약 때 내 육의 형질을 만들 듯
선생을 준비했다.

선생의 사생애 33년은 신약 때 내 육과
내 전능한 본체를 일체시키기 위한 시간과 같다.

선생의 사생애는 내 전능한 본체가
100% 그의 육을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길을 들이는 시간이었다.

고로 성경 속에 없는 나의 사생애는
선생의 사생애를 통해 투영하면 된다.

선생과 나를 따로 보면 안 된다.

선생은 바로 2000년 전 내 전능한 본체를 담기 위한
육과 같은 존재다.

오직 메시아는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한
전능한 성삼위 중 한 명인 영의 본체다.

그러나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

내 전능한 본체를 육의 형질에 담아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펼쳤던 것이다.

그 육의 형질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난 나의 육이고

또 이 시대는 월명동에서 난 선생이다.
2000년 전에도 내 전능한 예수의 본체가
내 육과 함께했기에
내 육이 메시아의 사명을 담당했고
지금 이 시대도 선생이 내 육이기에
선생이 내 전능한 본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진정 알고 깨달아야 한다.
오직 메시아는 전능한 나의 본체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육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많은 자들이 어렵게 생각한다.

나는 선생의 사생애 30년 동안
내 전능한 영과 일체될 수 있는 육으로 만들기 위해
끝없는 훈련과 연단을 시켰다.
너희 인생들도 말씀 듣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영이 성장한 만큼 육이 따라가지 못한다.
영이 원하는 대로 육이 100% 행할 수 있는 자는
섭리사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그런데 나의 전능한 본체가 원하는 대로
100% 행할 수 있는 육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고로 선생이 참으로 위대한 자이다.
아무리 내가 역사했다 하지만
선생의 그 자유의지와 나를 사랑하는
절대적인 마음이 없었다면 실패했을 것이다.
지난날 신약 때를 보아라.

사탄이 내 전능한 본체가 아닌 육에게 가서
그토록 꼬이고 넘어뜨리려 했지 않느냐?
바로 육의 형질이라 그런 것이다.
내 전능한 본체와는 상관없이
내 본체와 100% 일체될 수준만큼 성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육이라 해도 육의 습성으로 인해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성경에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기 전
그토록 심정의 기도를 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바로 내 육이 내 영을 통해 하나님께 한 기도다.
고로 선생은 100% 나와 일체되었기에
이 같은 환난, 핍박 이기며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내 육과 혼과 영의 존재를 깨닫고
이 시대 나와 선생의 관계를 진정 깨달아라.

나는 2000년 전 내 육과 내 전능한 본체가 일체되었듯이
지금 선생과 일체되어 있다.
전능한 내 본체가 선생 통해 다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강림한 것이다.
선생은 나의 육이다.
고로 선생과 함께 세상에서 오는
시련과 고통과 멸시를 또 다시 다 받아내며
이 땅에서 재림 역사를 펴고 있다.
선생에게 세상이 주는 고통, 멸시, 천대,
그 모든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선생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박은 그 심정의 대못,

나에게 박은 것이다.
고로 영안이 뜨인 자들이 나를 보면
내 본체에서 아직도 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전반기 삼십 년,
그때는 내가 나의 육인 선생을 통해 섭리를 뛰었다.
육으로 인생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 역사 이렇게 이루었다.
하지만 그 모든 주체는 나의 본체였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너희는 이런 영적인 깊은 세계를 깨닫고
시대 중심자를 대하여야 한다.
전능한 성삼위가 바로 일체될 수 있는 선생 육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선생은 바로 이 시대 전능하신 성삼위와
인생들을 이어주는 숨길이다.
선생이 없으면 너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 같이
사망에 거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섭리사 인생들,
이런 선생의 귀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기 바란다.
무지하게 지난날 유대인들처럼 내 육의 뒤에
전능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의 본체가 있음을 모르고
임의로 대한 것처럼 하지 말아라.
선생 안에 전능한 성삼위의 본체가 있다.

선생을 임의로 대하면 성삼위를 그같이 대한 것과 같고
그 고통 성삼위가 다 가져간다.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이 같은 멸시와 고통을 받는데
만물이 너희 인생들을 보고 참을 수 있겠느냐?
만물이 참람한 인생들을 보고 심히 분하여
너희를 치는 것이다.
만물도 그 안에 성삼위의 기운과 신성이 있기에
본능적으로 악한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는 것이다.

섭리사야, 제대로 알아라.
선생은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중심자와 다르다.
그 격이 다르다.
시대 중심자들도 나 예수가 그들의 육을 쓰고 역사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었다.
그들의 수준만큼 내가 역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선생의 육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기 위해 준비한
나의 육의 형질이다.
신약의 나의 육도, 이 시대 선생의 육도
그 전능한 나의 본체의 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대하라.
곧, 선생이 내가 되고 내가 선생이 되는
깊은 깨달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사랑한다.